

가을의 테마는 역시 '책'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독서문화 성숙도를 점검해 볼 만한 책 관련 행사들이 일찍부터 초가을의 문을 두드렸다. 개인은 물론 정부, 지역 사회, 시민연대의 자발적 참여가 주목되는 프로그램들. 책을 읽는 것 뿐 아니라 책 자체를 즐겨보자고 펼쳐진 그 현장들을 찾아가 본다.

서울, '책도시'로 옷 갈아입어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중랑구 중랑구청 지하 대강당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한 살짜리 영아들과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됐던 '2003 북스타트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토대로 2004년 북스타트 운동이 본격적인 발족행사를 가진 것.

북스타트 운동은 북스타트한국위원회(대표 도정일)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영유아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란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구청 내 보건소에 정기예방 접종을 하러 온 아기들(6개월~12개월)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발족식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본격적인 북스타트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발족식을 준비한 서울 중랑구 위원회측은 시범사업을 참고해 올 가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위원회 조직, 예산편성, 자원봉사 조직, 북스타트 가방제공 이후의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전반을 꾸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랑구 북스타트위원장 전영순 씨는 "발족식 이후엔 중랑구 위원회 자체에서 강연회, 정기소식지 발간 등을 꾸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책임있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안찬수 씨는 "시민들이 직접 시작한 최초의 북스타트 발족식이란 의미가 있다"며 중랑구 북스타트 발족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북스타트 운동 발족식은 서울 중랑구, 인천 연수구에 이어 서울 중구와 전남 순천에서도 가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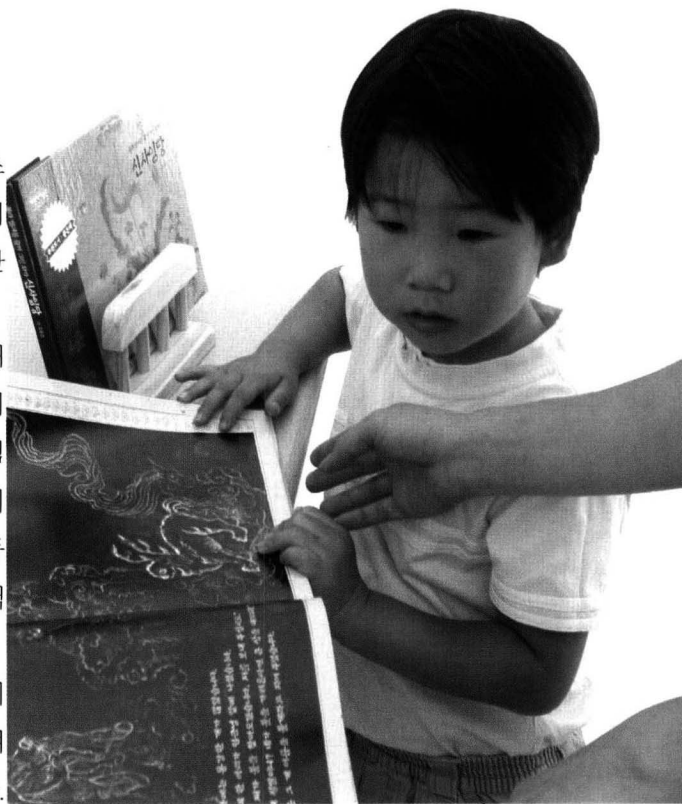
'책 읽는 서울'... 다채로운 북 이벤트

한편 지난 9월 4일 서울광장에선 '기초예술-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책 읽는 서울' (주최(재)서울문화재단) 개막행사가 열렸다. 연예인 유열 씨의 사회로 서울문화재단 대표 및 각계인사, 작가, 일반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행사는 시인 김남조 씨의 책 관련 시 낭독으로 운을 띄웠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은 다채롭게 꾸며진 부대 행사장. 시민들은 헌책을 새책으로 바꾸는 행사에 참여하며 휴일을 보냈다. 여기서 남은 책은 아름다운 가게 혹은 도서관에 기증돼 더 뜻깊은 의미를 남겼다. 체험 이벤트관에선 직접 책을 만들고, 목판인쇄를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선 어린이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나 황진이, 키다리 아저씨 등 유명한 책 속 캐릭터와 '디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문화의 기초가 되는 책부터 사랑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10월 28일 폐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9월 12일 충무로 한옥마을에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의 함성이 들려 왔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주최한 '제1회 어린이책 문화 한마당'에 참여한 아이들은 '옛 이야기 속에 내가 있어요!'란 주제로 열린 문화 한마당을 누볐다.

책소리  
책문화  
즐기는 가을,  
시민들  
발길  
이어져





특히 이번 책 문화 한마당은 옛이야기가 옛것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취지에서 마련돼 의미를 가졌다.

들어가는 마당, 옛이야기 마을, 책마을로 나뉜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은 옛이야기 마을. 우리 신과 도깨비, 옛 사람들의 풍속 등을 소개한 옛이야기 마을에선 삶의 축제인 대동놀이, 삼신할미궁, 뒷간놀이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뒷간에 들어가 뒷간 귀신과 인사한 아이들은 나올 때 '똥떡'을 받아먹으며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는 옛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체험했다. 이 밖에도 책마을에서 벌어진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이 어린이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 헤이리, '전 세계 출판미학을 만나요'

한편 9월 11일 문화 예술도시로 조성된 파주 헤이리 중심에 있는 BOOK HOUSE에선 '두 출판인의 책탐험전'이 개막을 알렸다. 전시회에 소개된 책들은 열화당 이기웅 사장과 한길사 김언호 사장이 1980년대 중반부터 함께 여행하면서 모아둔 것들로 전 세계의 출판미학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 사장과 김 사장은 당시 책 만들기, 출판도시와 헤이리 건설하기에 대한 주제로 자주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발길을 서점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앞선 시대를 산 출판 장인들의 정신을 생각하며 이번 전시를 둘러보길 권했다. 이기웅 사장은 옛 전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해외에서 출간된 고급의 한국 관계 문헌을 수집하는 한편, 보들레르의 《보들레르 시집》, 보티첼리의 삽화본인 단테의 《신곡》 등을 비롯한 호화 한정본, 진본 등을 폭넓게 전시에 내놨다. 또한 김언호 사장은 비주얼이 돋보이는 이미지 북들을 소개했다. 19세기 말 유태주의를 상징하는 《엘로 북》과 《사보이》지誌 등이 대표적인 책이다.



이번 전시를 관람한 김현희 씨(고양시 일산구)는 “해외 박물관에서나 볼 것 같은 독특한 책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주변 헤이리를 구경하고 가는 재미도 있다”며 관람 소감을 밝혔다. 책을 향한 각별한 열정을 가진 '두 출판인의 책탐험전'은 10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500만 권 장서 돌파, 국립도서관

한편 9월 15일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선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500만 권 돌파'라는 뜻 깊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945년 개관 이후 국내 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이룬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는 특히 납본제도의 정착에 크게 힘입은 것이란 게 국립중앙도서관측의 입장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임병수 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서 500만 권 돌파는 납본제도 정착 덕에 이룰 수 있었다”며 납본제도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기도 했다. 출판사가 발행한 책을 관계당국에 내는 제도인 납본은 1965년 시작된 것으로 현재는 90 퍼센트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상태다. 또한 도서관측은 ‘햇살 가득 다락방’ 행사를 벌여 납본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수집되지 않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중이라고 전했다. 뜻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락방이나 서재에 묻혀 있는 자료들을 기증해 준 덕분에 현재까지 약 6만 여 권의 자료가 모인 상태다. 임병수 관장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장서 1,000만 권 돌파도 어렵지 않다”며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확보와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최** 취재 김청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 1 충무로 한옥마을에서 열린 제1회 어린이책 문화 한마당 비가오는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은 부지런히 프로그램을 찾아다녔다. ● 2,3 파주 헤이리 BOOK HOUSE에서 열린 '두 출판인의 책탐험전' 열화당 이기웅 사장과 한길사 김언호 사장이 마련한 '책잔치'다.